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고, 늘 주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 회의에 빠진 친구를 대하는 법

## C. S. 루이스에게 배우다

헤아려 본 슬픔에서 C. S.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이 가져다 준 심리적 고통을 기록한다. 산만하고 또 슬픔에 잠긴 글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라는 상태가 가진 취약한 본질을 탐구한다. 인간은 우연과 덧없음에 쌓인 취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변증가인 루이스조차도 깊은 상실 앞에서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여부를 놓고 의심하는 시간을 만난다. 그가 겪은 고통은 "모든 일차적 증거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친다.



루이스의 기록은 의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그리스도인에게 의심은 그 근원과 처방 모든 면에서 다면적이다. 루이스의 차고 넘치는 변증 지식도 그에게 의심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예방이 되지 못했다. 그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모범답안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고통의 문제까지 썼다. 그러나 루이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고통에 관한 그의 주장에 합리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부족한 것은 감정적인 무게였다. 합리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주장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단지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다. 믿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루이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신론적 논증의 견고함이 아니었다. 그건 그가 이미 완벽

하게 숙지한 내용이었다. 그에 게는 다시 보는 능력,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냥 설득력으로 넘겨던 이유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필요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이스는 인간에게는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로마서 1장을 연상시키는 그 글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결코 피할 수는 없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세상은 그분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한 채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항상 어렵지만 한 건 아니다. 단지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는 기억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찬 "환멸에 빠진" 현대 세계에 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실천법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불안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기독교 신앙은 규모와 주장에 있어서 인생 전부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내면에 파고든 의심은 인생 전체를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의심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더 치열하게 답을 찾으려 만든다.

물론 기독교에는 의심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판적 탐구라는 오랜 전통이 존재한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주장과 증거를 탐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심하는 이들이 가진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오로지 합리주의에 근거한 논증에 그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명확한 탈출구가 없는 거대하고 불안에 휩싸인, 반박이 반박을 부르는 무한 루프에 빠질 것이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키울 수도 있다. 이걸 마치 말년에 의심이라는 병을 겪고 있는 루이스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루이스와 비슷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이런 식의 접근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제시하는 처방약 때문에 친구는 더 큰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다.

(3면으로 계속)



# 주일, 여전히 한 주의 첫 날인가?

##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은 결코 마지막 날이 아닌 첫 날

어쩌면 당신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양한 달력 앱과 사이트에서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로 바뀌었다. 원한다면 주일을 첫 날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본값(Default)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걸 사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요일과 주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틀, 한 쌍이다. 드라마 '다운튼 에비'에는 백 년 전 노동계급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전혀 모르는 나이든 그래픽 부인이, "주말이 뭐예요?" 하고 묻는 장면이 있다. 정규 업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므로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월일로 보는 건 합리적이다. 한마디로 노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다. 일주일을 단지 노동 주간(workweek)으로 축소하는 현실은 나를 괴롭힌다.

시간에 맞춰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삶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시간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다. 월요일을 시작으로 본다는 건, 오로지 일의 측면에서 삶을 바라보는 의미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주일 우선 사고방식과 월요일 우선 사고방식을 대조해 보라. 한 주가 예배와 안식으로 시작할 때, 뒤따르는 모든 것은 은혜와 감사의 빛 속으로 스며든다. 일조차도 예배의 일부가 된다. 무엇을 하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한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푸른초장 신승훈 목사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NEW) 제임스 구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 "SEEK HIS FACE!"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일시** 2024년 9월 22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온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와 마음을 짓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월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비상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들이 뽐히도록 선거일까지 작정기도, 연쇄금식기도 등 특별기도에 참여부탁드립니다"**

- 대회조직**
- 고문:** 송정명, 김춘근, 김영길, 김인식, 민종기, 최홍주, 한기형, David Andrade, Jorge Fuentes
- 대표대회장:** 한기홍목사
-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종규, 김태형, 김호용, 김한오,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신웅, 박성규, 박성근, 박은성, 백정우, 손창민, 신승훈, 이종용, 진유철, 최영봉, David Diaz
- 사무총장:** 강태광목사(323-578-7933)
- 준비위원장:** 강순영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심삼은목사(714-722-4805)
- 공동주최:**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은혜한인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주관:**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 후원:** 미주복음방송, 시온산재단, CMF 가정선교원, OC기독교전도연합회, OC장로연합회 각 지역교회협의회 목사회, SOON MOVEMENT





시론

메시지 전달의 기술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미국 대통령선거는 4년에 한 번 돌아온다.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60번째 선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의 사임으로 1968년 린든 B. 존슨 이후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해리스는 1968년 휴버트 험프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지명자가 되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리노이즈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2024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마지막 날 해리스는 대통령 지명수락연설을 통해 지지를 당부했다. 해리스는 미국 중요 정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며 최초의 남아시아 여성,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다.

그렇다고 본 시론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권고의 글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연한 강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장면들이 TV에 순간 포착되었다. 필자의 시선이 집중해서 쏠린 현상이다. 매 주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좀 더 그 메시지의 기술을 확인 해 볼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지의 의미를 성경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첫 번째, 공통된 정서로 가치를 규명하라. 미셸 오바마의 메시지는 “카멜라 해리스와 저는 같은 기본적 가치를 위해 우리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 기본적 가치(Same foundational values)는 “이 나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신앙인의 공통된 정서는 구속 받은 성도이다. 그 정서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와 명분이다. 그 정서로 인해 신앙인으로서 협력하는 동역의 관계가 형성된다.

두 번째, 사실을 확인 시켜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은 명료, 확고한 전달과 청중의 감동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을 듣고, 매일 일어나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 다음이 더욱 궁금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가설이지만 해리스가 사실처럼 느껴지고 있다. 신앙인에게는 우리를 위해 보고 듣고 싸우는(See, hear, fight) 하나님 존재한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섭리이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의 실제이다. 그렇다면 신앙이 약화되는 현상은 사실(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스토리를 만들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89년 생으로 웨이트리스 출신 뉴욕 하원의원이다. “삶(생계)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부끄러움)가 되지 않는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working for a living.” 그러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문을 여세요.” 인간 모두는 삶의 스토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삶의 행위가 어떠한 믿음을 생성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구속론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메시지에 소명의식을 담아라. 21일 전당대회 3일 차에 생애 첫 정치 무대 연설자로 오프라 윈프리가 등장했다. 그 메시지에 경쟁 상대자인 트럼프, 공화당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지는 명료했으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확장되었다. “이제 우리 불 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당장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Do something.”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I가 아니라 You’를 강조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소명의식이다. 신앙인에게는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이 지구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존재론적 목적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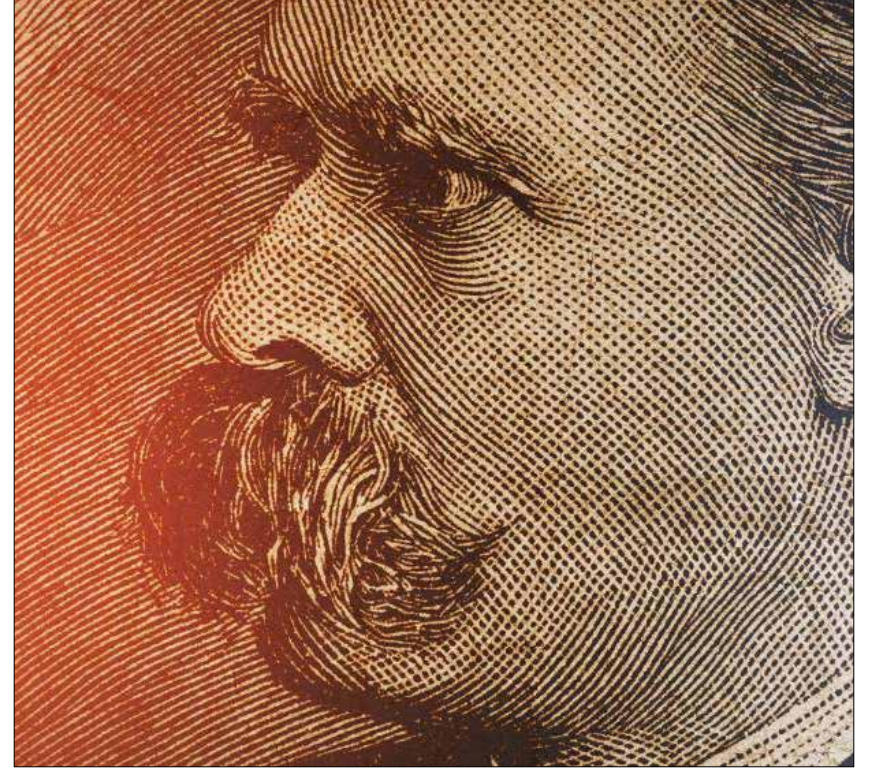
결국 모든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 없는 메시지는 이론과 합리적 객관화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진정성은 신앙의 기초이다. 진정성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 온 사건도 구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올 해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진정성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www.epipodo.com

니체를 정치적 스승으로 삼지 말라

기독교 윤리야말로 위험하기는커녕 변영으로 가는 길이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The Anti-Christ)에서 “신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느낌, 권력을 향한 의지,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권력 느낌을 고양하는 모든 것”이라고 썼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에까지 이른 자기애”라고 부른 것의 가슴 아픈 예이며, “자신을 경멸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의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사실 니체는 자신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상반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책에 ‘반-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하늘의 도시를 통해서 만든, 사회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전이 여전히 미국 정치 스펙트럼의 좌파와 우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상당한 면에서 점점 더 니체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 어느새 니체는 우리의 스승이 되었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니체 철학의 세 가지 역할과 하늘의 도시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다.



권력 갈등

니체는 권력에 근거한 해석학을 가르쳤다. “나는 모든 특정 신체가 모든 공간의 주인이 되고, 권력을 확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견 점점 더 정치적 좌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권력 불균형을 균등화하고 권력이 부족한 사회 집단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를 증진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권력의 교차 지점과 사회적 권력 역학의 역전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니체와 마르크스의 철학에 뿌리를 내린 이론이다.

복음은 이기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해석학이다. 우주의 근본적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빌 2:6-7).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겠다”는 생각 그리고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은혜로운 의견 불일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상호 변영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진실 왜곡

권력을 핵심에 두는 사고방식의 문제 중 하나는 진실 왜곡이다. 니체는 노트에서 “현상 앞에서 멈춰 서서 ‘세상에는 오로지 사실만 있다’고 말하는 실증주의에 나는 반대한다. 나는 ‘아니, 사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단지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 니체에게 ‘진실’은 권력 집단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것은 의심의 해석학을 불러일으킨다. ‘사회 변영’에 관해서 말하는 정치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지 권력욕에 빠진 자신들을 믿도록 조종하는 수사적 가면일 뿐이다. 의심은 정치인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확대됨으로 인간관계와 시민적 대화의 기초까지 침식한다. 가짜 뉴스의 증가, 모호해지는 뉴스 보도, 소셜 미디어 매체 증가, 이 모두로부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였다”(요 1:14)라고 묘사한다. 그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고한 “진실”과 그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는 현장,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배울 수 있다.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순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 속에 숨은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의 죄악과 거짓됨이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나이브한 모습으로 살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죽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배풀지 않겠는가? 그건 사람들에게 숨은 동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5년도 밀알장애인가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신청마감 2024년 12월 6일(금)까지
발표 2024년 12월 31일(화) 개별통보함
수여식 2025년 1월 20일(월)
수여대상: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제출서류: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1. 밀알장학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경양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경양식),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3. 근로복지생: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경양식),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장학금액: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꿈나무장학금: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 Website: www.milalsca.org
2024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6,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012,400입니다.



### 회익에 빠진 친구를 대하는 법

(1면에서 계속)

두려움이 야기한 광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 전부를 통제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불안하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는 친구와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를 도울 수 있다. 친구의 의심을 끊임없이 공격할 필요도 없고 모든 질문에 굳이 철저하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대신 친구와 동행하며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함께 힘을 합쳐서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특정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십의 동기가 되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장례식에 가라고 충고한다(전 7:2). 이생의 영속성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깊이 숙고함으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의심과 환멸을 통과하고 한 번 더 "매혹적인" 삶을 사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 3. 함께 걸으라.

우리의 일상생활은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산성으로 나날이 침식

또한 다음과 같이 썼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물질 속에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물질에서 느끼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라."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는 자연조차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잔인한 현실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주문처럼 눈에 보이는 해로운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평평하고 지루하며 생명 없는 것처럼 보도록 속인다. 의심하는 친구가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는 이 세상을 만든 신분의 더 큰 아름다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공동 예배에 초대하라.

의심이 파고들 때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예배가 이제는 불안한 질문들로 가득한 현상이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신앙 공동체에서 한 발 떨어지는 게 더 진실한 태도인 거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루이스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친구들조차도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

교회가 항상 의심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회의론을 없애주는 확실한 3단계 논증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고, 공동 예배는 깨어진 인간의 주의력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가장 구체화된 처방약이다. 교회는 실로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함께 참석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가장 구체화된 방법이다.

교회는 의심이 생길 때 피해야 할 곳이 아니다. 교회야말로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모든 죄인을 환영하는 곳이다. 믿는 마음만큼이나 의심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진실 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시편 44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 친구들도 똑같이 하도록 초대하라.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상관없이 예배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당신부터 예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친구들도 하여금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by Joshua Chatraw-Jack Carson, TGC



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2. 신성함에 함께 참여하라.

현대 세계가 가진 신에 대한 환멸은 완전하지 않다. 가장 열렬한 자연주의자들조차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누구라도 더 신성한 것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가장 세속적인 문화에서도 탄생과 죽음, 결혼이 가진 깊은 의미를 인식해야 함을 알고 있다.

친구와 함께 이 매혹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기를 꼭 안아주라. 새로운 삶이 가진 경이로움과 낙담함을 생각하라. 결혼식에 참석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라. 휴일을 축하하라. 지난날들을 되돌아보고 삶의 덧없음을 떠올리라. 지혜와 잘산다는 게 무엇인지 숙고해 보라. 루이스에게는 죽음이 의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둘러야 한다는 충동에 시달린다. 그럴수록 속도를 늦추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자연계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한다(시 19:1-6). 이 말씀에 의지하여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서 보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폭포에 감탄해 보라. 별이 빛나는 밤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젖어 보라. 당신 주위를 둘러싼 하나님의 위엄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느끼는 점을 친구에게 설명하라.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인간의 믿음을 파괴한 경험에 있는 악마가 자신의 젊은 상대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된 방앗간으로 걸어가서 차를 마시도록 놔뒀어. 그가 정말 좋아하는 시골길을 혼자 산책하게 그냥 뒀어. ... 아니, 자연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결코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던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는

### 목회단상

### 미리 감사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축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리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미리 감사를 통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신 16:15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초막절의 감사는 주신 복을 감사하며, 동시에 주신 복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미리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라고 미리 감사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같은 미리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주신 복을 미리 감사함으로써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2000년 가을입니다.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Daly City에서 280번 하이웨이로 들어서면서 사고를 당해, 6차선이나 되는 그 큰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되었고, 아내는 정신을 잃은 채로 앰بول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의사들은 x-ray 등 온갖 검사를 하였고, 찢어져 피가 흐르는 머리는 마취한 후에 꿰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독한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갑자기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달려가 CT Scan으로 뇌 부분을 정밀검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I am very glad to tell you that your wife is okay."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계속 구토가 이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못 되거나 앉았는지 근심이 많았습니다. 의사를 만나 아기가 괜찮을지 상담하는데, 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루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내를 큰 교통사고 가운데 살려주셨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때부터 드린 것이 '미리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건강한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셔서 착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좋은 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늦둥이 막내 딸 수경입니다.

큰 아들 John은 다섯 살 때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말이 느렸던 아이였기에 미국 학교에 들어가 영어 배우라, 집에서는 한국어 배우라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역지를 따라 옮겨가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사춘기로 인해 나와 아내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John이 고등학교 Junior 때입니다.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는 새벽에 기도했고, 아내는 세 아이를 재워놓고 철야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였거늘, 너보다 더 사랑하는 네 아들일까보냐." 그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 때부터 나와 내 아내가 드린 것이 '미리 감사'였습니다. 매 달 첫 주일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미리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비실비실(BCBC)하던 아들의 성적은 ABAB로 좋아졌습니다. 대학입학사정관은 점점 성적이 좋아지는 아들의 장래성을 보고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며 갈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아들이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나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자." 그리고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때 또 감사를 드리자. 나는 내가 깨달은 "미리 감사, 또 감사"라는 축복의 원리를 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팬데믹 기간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갔고, 결혼도 하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revkwak@gmail.com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만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 추천도서

-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 티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 어쩌다 거룩하게 / 니디아 볼즈웨이버, 온종석역
- 일상의 유혹 / 손성환, 토기장미
-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 시대를 읽다 / 박영호, 복있는사람
- 생명언어로 가는 일상의 성화 / 이인미, 시시콜
-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 김기석, 도서출판 KMC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시사이드장로교회)

###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빌립보서 3:20 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시민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권한을 갖는다.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여권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주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 시민권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고린도 후서 3:2, 3절 말씀이다.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증명서가 된

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증거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그 가치관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가 맺는 열매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열마름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는 것에 따라 성공이 판가름 된다. 그래서 사업도 크게 잘해야 성공한 것이고, 학교도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와야

성공한 것이고, 직장도 크고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녀야 출세한 것이고, 결혼도 출세한 사람과 해야 잘한 것으로 판단한다. 목사도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목회하여야 성공한 것처럼 판단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그것과 다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교회이다. 어느 날 옥한흠 목사가 고아들을 데리고 고생하며 목회하는 반기상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 이런 말을 하였다. 반 목사, 반 목사가 정말 진짜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알지? 나는 세상에서 너무 고생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지내고 살아가는 것이 없을까 하는데 반 목사는 진짜 목회를 하니 상이 클 거야! 반 목사가 부러워. 반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

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목사님, 저 그런 말을 옥 목사님에게서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앞으로 계속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그런 일을 하는 반 목사님도 참 훌륭하게 보이고 그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준 옥 목사님도 훌륭하게 보였다. 사실 그 당시 세상에서 더 잘된 사람은 분명히 옥한흠 목사님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지금 고생하며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상을 받을 진정한 보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형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성경엔 바사라고 썼지요.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이고 그 부인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유대 여인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그 때는 페르시아가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의 포로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끌려갔는데,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하고 다 끌려갔던 것입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70년이 지나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 1차포로 귀환이 지나고 93년쯤 지나갔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유다사람 하나가 오니 반가움에 소식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니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3절-4절) 포로가운데 돌아간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는데 민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앞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1장 6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나도 죄를 짓고 우리 아버지의 집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를 지으면 흠을 짓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든가 내가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

이 술 관원 느헤미야가 내 민족이 포로귀환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성벽이, 성문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산다니 맘이 어떻게 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엔 수심이 묻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왜 그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지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2:3-4)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목도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뒤, 나를 보내서 성

대인들을 돌려해서 함께 일케 하라 하니 그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된 것은 술 관원이 되어서 임금에게 예루살렘 재건축의 허락을 받았고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허락 조서를 받고 재군대장병과 마병까지 다 이루어졌기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아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고,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우리 죄라고 말하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죄라고 우리 집안의, 이스라엘의 죄라고 회개 하며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에 생각과 계획이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 형통하여 영광 돌린 느헤미야

### 느헤미야 1:1-2:9

회개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5대 6대 조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후손일 뿐이며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악들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

미국 땅에 사는 우리도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어도 미국의 죄는 우리의 죄인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의 죄는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 미국은 저것들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에 만약에 너희가 범죄 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흠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천년 만에 다 흠어진 것입니다. 망한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믿음이 들어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때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11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시 술 관원은 술 관리하는 사람정도가 아니라 임금에게 드리는 술, 그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마시고 독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금께 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위가 술 관원인 것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예요. 요즘 말로 비교하면 비서실장이면서 친구면서 고문이예요. 느헤미야는 늘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을 재건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상세하게 그동안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정확히, 즉시로 대답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며 미리 필요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7절-9절에 보면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 유다까지 잘 들어가게 하는 통행증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림 감독 아사에 게 조서를 내려서 들보로 쓸 재목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해 왕이 허락하고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돌아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52일 동안 완성을 한 것입니다. 재목들까지 가지고 갔으니 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다른 동족이 조롱하고, 자기 동족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입니다. 자식이 망신당하면 부모의 망신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영광을 받으면 부모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망신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잘못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하니가 하나님이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생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 할 때 거침없이 이야기 한 것이예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미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이것은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술 관원 되게 하시고 왕이 먼저 묻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니 다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 같아요. 교회를 보면서 ‘몸 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불평하며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말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미국과 한국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미래를 위한 설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을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에 선교사가 은퇴 계획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믿음에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공급만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선교사들에게 은퇴를 계획하고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대안이 없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GP 선교 회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심있는 선교사 여러 명에게 재정적인 준비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지원하던 교회가 갑자기 재정을 끊거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다가 그 미래가 우리를 참담한 상황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시간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즐기지 못했고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니까 반대로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은

퇴 후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는지 모를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고 계획하지 못한 시간에 자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미래를 삶의 계획 속에 담아내면 앞으로는 후회없는 인생이 설계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현재 여유가 없더라도 규정에 따라 조금씩 저축도 하고 은퇴 연금에도 가입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적절한 시간을 운동도 하라고 마음을 모았습니

다.

이곳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여행객들이 방문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론 나이가 지긋한 부부를 볼 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특히 몇 지역을 기차로 이동하면서 서구에서 여행 온 70대, 80대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저희는 재정 절약을 위해서 기차로 이동했지만, 연세가 지긋한 부부가 이국땅에서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무거운 가방을 끌어가면서 기차와 버스로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들과 대화해보면 젊을 때부터 이런 미래를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여행에 나선 것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날 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을 지키는 운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겼으니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되었겠어요? 이런 마음의 여유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과거를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영부영 삶을 보내고 실속없이 세월을 까먹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결단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은 세상의 다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세상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바로 이곳 말레이시아 사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이런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던 곳에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美 배관공 연봉, 대졸의 3배... AI 시대 대박난 블루칼라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제러드 핸더슨(25)은 올해로 배관공 7년 차다. 미국 배관공협회 제공되는 도제 견습 시스템을 통해 1년간 일을 배운 핸더슨의 올해 연봉은 20만 달러(2억6900만원)에 달한다. 같이 학교를 다닌 동창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등에 취직해 받는 연봉은 8만 달러(1억7000만 원) 정도다. 고졸 핸더슨의 1년 소득이 대학에서 4년간 엄청난 학비를 부담하고 사회에 나온 대졸 동년배들 임금의 3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미국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올해 분석에 따르면 마스터급 미국 전문 배관공의 평균 연 수 수입은 9만348달러다.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석사학위 소지자의 평균 연봉(8만6372달러)을 웃도는 수준이다. 저숙련자를 포함한 전체 배관공 평균 연봉도 6만130달러로, 대졸 초 임 평균 연봉(5만8862달러)보다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육체노동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미 전역 직업 전선의 현실을 조망했다. 핸더슨의 사례는 관리직, 사무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 전문가가 찾기 힘든 일’을 하는 블루칼라 전문가가 얼마나 전도유망한 고소득 직종인지를 잘 보여준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22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뉴욕의 인플루언서 렉시 아브레우(27)는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수리하고 전기 패널을 고치는 수리공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의대 예비 과정을 다니던 아브레우는 학업이 적성에 안 맞다고 느껴 중퇴한 뒤 할아버지·아버지가 하던 전기공 가업을 이었다. 그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급여 수준이 높은 데다 일하고 쉬는 것 자체를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제야 비로소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블루칼라 직종은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대졸 화이트칼라 직종을 제치기에 이르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도제식 견습 교육을 마친 기계공의 시간당 임금은 23.32달러, 목수는 24.71달러였다. 대졸 초임 화이트칼라의 시급(20달러)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 태풍 ‘아기’ 직격탄 맞은 동남아... 베트남 2조 원대 피해

슈퍼태풍 ‘아기’로 인해 동남아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약 2조 원대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까지 최소 113명으로 집계됐다.



16일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야기 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약 40조동(2조17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0.15%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하이퐁성, 꽝닌성, 타이응우옌성, 라오까이성 등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성장률이 0.5%p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농업·임업·수산업 분야 성장률이 0.33%p 떨어지는 등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베트남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6.8~7.0% 수준이다. 야기는 지난 7일 베트남에 상륙해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전날 기준 사망자는 281명이며, 실종자는 67명이다. 이밖에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인프라가 다수 파괴되고 전력과 통신 두절로 여러 기업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조 민 톤 군정 대변인은 113명이 숨지고 64명이 실종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어 홍수로 주택 약 7만2900채가 파손됐으며 이재민 약 32만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화와 인터넷 연결 불가로 집계되지 않은 수치와 군정 통제권 외부 지역 피해 등을 종합하면 실제 희생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군정은 야기 영향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며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야기는 베트남 상륙에 앞서 필리핀을 강타했으며,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지역에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AK소총 겨냥 용의자 체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었으나 안전하다”고 전했다. SS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밖에 있는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남성인 용의자는 골프장을 둘러싼 울타리와 덤불을 통해 AK-47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쳤고,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두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사격했다. 경호국 요원의 사격에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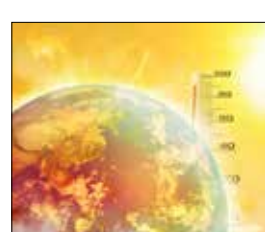
다가 팜비치카운티 북쪽에 있는 마틴카운티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라파엘 바로스 마이애미 SS 지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요원들이 그와 교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사된 총알 4발이 전부 경호국 요원의 총이나는 질문에 4발인지 6발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답했다. 용의자가 있었던 덤불에서는 조준경을 장착한 AK-47 유형의 소총과 세라믹 타일이 든 배낭 2개가 발견됐으며 현장 촬영 용도로 보이는 고프로 카메라가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프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였으나, 울타리 밖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는 지점이 일부 있었다고 한다. N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당시 5번과 6번 홀 사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이날 용의자의 신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한 데 대해 안도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은 안전하다며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 더우면 안 됩니다’ ...美 임대 주택 온도 규정 추진

무더위가 일상화되며 북미 여러 도시에서 최대 실내 온도를 규정해 세입자를 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은 7월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81도(섭씨 27.2도)를 초과할 때 주택 내부 온도는 화씨 78도(섭씨 약 25.6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은 4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조치 미이행 시 매일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올해 1월 주거용 임대주택의 최대 실내 온도 한도를 정하고 세입자가 자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방 준비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델러스와 휴스턴, 캘리포니아주의 팜 스프링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역별로 화씨 80도~85도(섭씨 약 26.7도~29.4도) 사이에서 온도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인 피닉스에서 세입자가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10일 이내 임대인이 에어컨을 수리해야 한다.

지난달 출범한 세입자연합의 창립 이사인 타라 라구비어는 “상황이 바뀌고 있으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 주택의 비상사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임차인들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토론도와 캘거리의 임차인 권리 단체는 임대인이 섭씨 26도로 냉방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시의회에선

캐나다 최초로 임대 주택 내부 온도 상한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캐나다는 주로 냉대기후 지역이 많아 오래된 건물들이 겨울 보온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돼 여름에 열기가 잘 빠져지 않는다. 하우스 총 토론도환경연합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1년 내내 그런 기후에서 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대인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냉방 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인해 임대료를 올리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아파트 소유주 협회의 마케팅 및 교육 담당 이사인 알렉산드라 알바라도는 “임대인들은 이미 유지 보수 및 보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은 이익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 ‘백인 우월 전파자’ 테러그램 운영한 美 30대 기소

미국에서 텔레그램을 악용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테러를 선동한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테러그램(테러+텔레그램)’이라는 이름의 채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극단주의 사상과 폭탄 테러 방법, 테러 대상 명단 등을 공유해왔다. 수사 당국은 미국 안팎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 일부가 이들과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검찰은 테러그램 중동자 델러스 에린 험버(34)와 매슈 로버트 엘리스(37)를 기소했다고 CBS 등 미국 언론이 지난 9일 보도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방 공무원 살해 교사 세 건, 증오 범죄 선동 네 건, 테러리스트 지원 모의 한 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이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백인 중심 단일민족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려 했다고 밝혔다. 각지에서 폭력과 테러를 선동해 ‘인종 전쟁(race war)’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 발전소 등 기반 시설 공격과 주요 공직자의 암살을 모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폭발물에 방사는 물질을 섞은 ‘더러운 폭탄(dirty bomb)’, 편지 형태로 위장한 ‘편지 폭탄(letter bomb)’의 제작법을 공유했다. 상원의원, 연방 판사, 전직 법무장관, 공무원, 기업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암살 대상의 개인 정보를 담은 명단도 유포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총기 테러를 벌인 범죄자를 ‘성인(Saints)’으로 치켜세우는 게시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러면서 테러그램 채널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선동했다. 이들은 “지금 행동을 취하라” “너의 역할을 수행하라”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들은 텔레그램상에서 인종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해왔다고 한다.

텔레그램 대변인은 “폭력 선동 행위는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금지돼 있다”며 “텔레그램 운영자들은 수년 전부터 테러그램과 연관된 채널 여러 개를 삭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콘텐츠도 게시되는 즉시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99. 김원택 (1873-?)

김원택은 1873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내 송 부인과 아들 용새와 함께 상수구박에서 거주하다가 32세가 된 김원택이 29세 부인과 8세 된 아들과 함께 1905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선 시베리아호에 승선하였다. 그들은 그 해 5월 1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와 그의 가족은 초기 하와이 감리교인 명단에 없으므로 그때까지 세례 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으나 자녀가 있었으므로 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으로 본다.



멘티카 한인감리교회

김원택은 가족과 함께 상항에 입항한 후 바인나를 거쳐 1908년에 중가주 프레스노에서 여관을 신설했다. 프레스노는 부시(富市)라고도 불렀다. 그 해 3월에 그가 정운화에게 식비 20여 원에 이불까지 주어 일하러 보냈는데 야간 도주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해 8월에 조명렬이 프레스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김원택의 여관에 머물며 치료하였는데 김원택이 1달러를 후원하였고, 그해 11월에 선천에 있는 대동 보육원에 10달러를 기부하였다. 그의 기부는 이듬해에도 계속되었다. 이듬해 6월에는 신한민보에 5달러를 기부하였고, 그해 9월에는 한국승이 질병에 걸렸는데 후선하여 입원하게 하였으며, 그를 위해 한영호가 20여 달러를 후원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하다가 런던에서 곤란을 당한 이흥주와 민병기를 위하여 1달러를 후원하였다. 1910년 5월에는 국민회 프레스노 지방회가 회관을 마련하기로 하고, 5명이 집세를 한 달씩 전담하겠다고 하였으며, 1원이나 2달러를 매년 후원하기로 한 자가 45명이었는데 김원택이 자기의 생활하는 여관을 회관으로 쓰게 하고 노동 주선까지 일체 회관에 양도하면서 방 하나만 따로 얻어쓰기로 작정하여 모든 회원이 그의 공고한 의협심에 감복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사도회관 마련을 위하여 1달러를 후원했고, 1911년에도 기부가 계속되었다. 그해 3월에는 청국 구제금으로 1달러를 기부하였는데, 그의 아내 송 부인과

50센트를 후원했고, 그해 5월에는 신한민보 가족 고본금을 기부했고, 그해 9월에는 국민의무금을 냈다.

1911년 12월에 김원택은 북가주 산호제 인근 씨니벨에서 125에이커를 임대하여 10여 명과 함께 토마도를 농사하였고, 이듬해 7월에 '동포를 돕는' 그에게 하늘이 풍작을 내렸다.

#### 마운틴뷰 한인감리교회 대표/권사

상항 한인 감리교회에서 1915년 6월 26일 토요일에 제1차 한인교회 지방 연회가 개최되었다.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인 김원택은 같은 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였던 허 섭과 함께 참석했다. 그들이외에도 항구 선교사인 이대위 목사, 황사용 전도사,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성원, 사도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찬일과 이응목, 상항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황사선과 강영승,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필권과 임준기가 참석했다.

이대위 목사가 개회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한 후 임준기가 서기로 선출되어 회무에 들어갔다. 북가주 한인 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가 있는 후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대위는 연회에 참석하여 지방 집사 목사로 안수받게 되었고,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의 임준기, 사도 한인 감리교회의 이응목과 양주은, 상항 한인 감리교회의 황사선에게 지방 전도사 기간을 연장하였고,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에 순회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1915년 태평양 연회에 보고된 바로는 마운틴뷰 한인 감

리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이 6명이었고, 등록된 학습 교인은 7명이었다.

####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 건축 회계

미국 남감리교 태평양 연회 동양선교부는 1916년에 김원택 등 멘티카 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중심으로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를 설립했다. 황사용이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는 멘티카뿐만 아니라 스타톤, 오클랜드 그리고 매리스빌까지 관할하였다. 그해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 교세 보고는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교세 보고와 합하여 보고되었다. 세례 교인은 1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1917년 3월에 무사당 농사하는 사람은 김원택 이외에도 문양목, 신경환, 이국신, 신영철, 한치홍, 김필권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이중 김원택은 600에이커 농장을 단독 경영하였는데 그달에 수도기계를 고치다가 발이 상하였지만, 부주하게 농사에 임했다. 그해 4월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한인 학생 20여 명이 김원택의 농장에 들어와 노동하였는데 이들도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법하다.

그해 가주 버클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임정구가 순회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멘티카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와 스타톤을 섬겼다. 그해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은 51명이었고, 등록된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그해 11월에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3인 건축위원회를 조직했다. 김원택은 김필권과 함께 건축위원회 회계를 맡았고, 최영익은 건축위원회 수전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경보가 콜로라도 스트리트 길에 있던 광 25척, 장 100척의 집터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수도 기부하였다. 그래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비를 약 600원으로 예산하였으며, 건축비 중 300원으로 모집되기를 기다려 우선 공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달 25일 예배 후에 교인들이 200여 달러를 헌금하였고, 태평양 연회가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신한민보는 "북가주에 재류하는 일반 동포는 이 같은 박애관 건축에 다같이 동정을 기울임이 가하다"라고 광고하여 건축비 모금에 힘을 실었다.

그해 12월에 멘티카 지방회 신년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회장 김원택, 부회장 김필권, 총무 박연, 서기 겸 학무원 최영익, 법무원 및 실업부 한치홍, 재무 강원서, 구제원 허섭, 대의원 문양목.

김원택은 우체국 사서함 177호를 설치하고 멘티카에서 노동 주선인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2월에 그는 "자, 여보, 책력을 보고 주머니 하나를

지어 가지고 오시오"라는 광고를 신한민보에 아래와 같이 게재했다: "웬스터의 자전을 만드는 손 씨로 주적을 내오리다. '자, 여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돈맛 알고 게으르지 않은 청년을 부름이오. '책력을 보라'함은 3월 3일을 주의하라 함이오. '주머니 하나를 지어가지고 오시오'는... 이곳에서 버는 돈을 넣어둘 것을 준비하라 함이오. 이만하면 알아들으셨소? ... 이곳 멘티카에서 3월 3일부터 호번호 10달러이올시다. 사람은 150명 제한하고 모집하오니 이 기회를 잃지 마시고 열른 오시오. 만일 인원이 차서 그저 돌아가시게 되면 당신네보다 내가 더 섭섭하지요"

그해 8월까지 모금한 건축 헌금은 250달러 35센트였다. 건축위원회 회계원인 김원택이 건축헌금을 한 명당과 금액을 신한민보에 공개했다. 김원택, 한치홍 25달러, 이석진 15달러, 허섭 10달러 50센트, 김경보, 김계선 10달러, 한신에 8달러, 김경심, 김원도, 한상호, 하도원, 김대일, 양주는, 전흥록, 염만석, 한성실 5달러, 석대원, 김성고, 문양목, 장덕오, 이영풍 3달러, 이국서 2달러 50센트, 김일심, 이치완, 이성환, 이성로, 이선보 이매리, 김성권, 심삼목, 이원석, 김창규, 안중권, 허원섭 2달러, 송기는 1달러 50센트, 이성취, 최희송, 박유대, 김희주 1달러, 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헌금을 하였다. 익톤 목사 31달러 85센트, 제이만다사 1달러 50센트, 서양 부인 50센트. 그런데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친교실까지 건축하였는데 1,200달러를 모금하였고, 300달러를 채용하여 완공하였다. 그해 임정구 순회 선교사가 보고한 대로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에는 세례 교인이 5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5명이었다.

1919년 4월 27일 오후 2시에 멘티카 지방에 있던 대한 여자 전도회 창립 2주년 기념식이 멘티카 한인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그날 김원택은 연설하였다. 그날 순서는 개회한 후 강요선 회장이 기도하였고, 회장이 취지 설명을 한 후 임정구 목사가 영어로 연설하였고, 김원도 부인이 전도회 역사를 보고했으며, 강엘리스 부인이 창가를 한 후 김원택이 연설하였으며, 학생 일동이 노래한 후 임정구 목사가 연설하였고, 문덕소가 국가를 불렀으며, 익톤 목사 부인이 연설하였고, 강신애 부인이 독창하였으며, 익톤 목사가 연설한 후 마쳤다.

김원택은 1919년 10월에 의무금을 냈고, 1920년 3월에 다뉴바 경축비로 약간 후원하였고, 그해 9월에 신한민보에 보조하였고, 그달에 의무금을 냈다. 1921년 1월에 이승만이 이끌던 구미위원회에 후원하였고, 그해 4월에 간도 참상을 위해 구제금을 기부했고, 그해 8월에 월로스 비행 학교 학생에게 후원했으며, 그해 9월에 국민의무금을 냈고, 그해 10월에 대한민국 임

시정부에 특별의교비로 의연했다.

1923년 2월 초에 김원택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주 대학 의학과에서 공부하던 그의 아들 김용성이 전하는 바는 매더라에 있는 주택 응접실에서 불이 나서 사정없이 불이 온 집을 둘러쌌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었으나 손님으로 온 안영열 부인의 의복 등은 재산이 소화되어 손해액은 약 5천 달러였다고 한다. 불난 주택은 백인에게서 세내어 살던 집이었다. 이런 란 가운데 한국에서 설립하려는 민립 대학을 위한 기성회 후원회 조직에서 탈락하여 아쉬움이 있었으나 크게 활동하였고, 그해 11월에 멘티카 국어학교 재무 김마루라 씨의 보고에 따르면 동포들의 기부와 김원택의 3달러 후원으로 설비를 충분하게 구비하였다.

#### 나성 한인 장로교회

김원택은 1925년에 나성에서 거주했다. 당시 나성에는 나성한인장로교회와 1년 전에 분열해 나간 자유 교회가 있었다. 그는 나성 한인 장로교회에 등록했다. 1928년에 김중수 목사가 제1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듬해 5월에 김원택의 장남 김용성 박사과 김애드리 양이 시내 서양인 장로교 예배당에서 김중수 목사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약 340명이 참석하여 나성 한인 사회에서 드물게 보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날 오후 6시에 혼인 잔치가 시내와 심톤 스트리트에 있는 체비비에서 200명이 모인 가운데 김중수 목사의 기도 후 식사를 나누고 각처에서 온 예물이며 축전과 축하문을 읽었고, 신랑 부친의 감상담과 신랑 신부의 감사담과 내빈의 축하담이 이어졌다. 그해 11월에 김원택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 이듬해 1월에 그전의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1929년 4월에 김중립을 중심으로 김원택은 김순권, 이영수, 광림대와 함께 버들길에 있던 나성 한인 장로교회당에서 모여 대동 흥업회사를 조직하였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나성 한인 자유교회에서 있었던 북미 실업 주식회사의 후신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해 동안 운영한 식당상점을 매매한 후 김원택은 1933년 6월에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여 선천에서 사업을 하였다. 귀국 7년 후 1940년 5월에 그가 클리블랜드 선편으로 남가주 산페드로 항구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6개월 머물기로 했으나, 사업 관계상 7월 말에 산페드로 항에서 가마구라 선편으로 그는 귀국 길에 올랐다. 아들 "김용성 박사 동부인과 손녀 제니와 다수 친우와 및 중앙 상무부 총무 김병연씨가 부도에 나가 전송하였고, 이별을 아끼는 정은 가는 이나 보내는 이가 다같이 섭섭하였다." 이후 김원택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안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회: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www.lbfcc.com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전 2:0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임의예배: 오전 11:15(수-금),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hall.org / www.b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세계선교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jcc.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회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 평신도 여성서당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626) 946-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 365일 24시간 온론 Tel: (714) 446-6202, www.graec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 요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47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 금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rsstone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본당) E.M. 예배: 오전 9:45(1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평강교회</b> 담임목사: 송금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복교: 오후 11:00 TE-동요문선(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성경찬양(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 2. 경건을 방해하는 요인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신학은 도움을 요청하는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주석은 목회사역의 일부분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가 이중적인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는 초신자들에게 성경연구를 소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적대적인 정부 앞에 있는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격려하여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단지 신학적이고 주경학적인 글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적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적극적 도움 요청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 세 편의 목회적 교훈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논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런 글들에는 경건의 가르침에 대해 보다 진전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있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 할 때에 겪어야 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 1) "중상모략에 관하여(On Scandals, 1550)"

##### (1) 쓰게 된 동기

프랑스의 개혁교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 칼빈은 오랫동안 자신이 『기독교강요』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적인 충고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 하나의 논문을 쓸 것을 계획했다. 핍박을 받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제네바로 도피해 왔다. 폭넓은 서신교회를 통해 칼빈은 고국에 남아 있는 동향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1546년 9월 칼빈은 친구 파렐에게 『갈라디아 주석』 때문에 그 논문 작성을 중단하고 있다고 써 보냈고, 그 논문이 완성된 것은 1550년 8월이었다. 그것은 그의 친구 노르망디의 로렌스가 겪은 불운으로 인하여 그 작품의 완성을 위한 자극이 되었다. 로렌스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후 복음을 위해 고국과 고국에서 차지하던 사회적 지위를 포기했고, 일 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와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다. 로렌스는 자기가 종교를 바꾼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것 같은 표

현을 했고, 칼빈은 이런 상실감에 빠진 로렌스를 위로하고 그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펜을 들었던 것이다.

#### (2) 칼빈이 성경을 사용하여 말하는 '중상모략'

복음서는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의 중상모략의 대상이었으며 복음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중상모략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첫째는 천성적으로 온순해서 중상모략의 조짐만 보여도 두려워서 감히 복음을 맞보지도 못하는 자들, 두 번째는 매우 게으르거나 가르침에 잘 순응하지 못하여 복음의 성가신 부름에 호응하지 못하는 자들, 세 번째 거만하여 자기 자신의 지혜를 그릇되게 신뢰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네 번째는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온갖 험담을 다 주어 모으거나 심지어 복음에 대한 증오 때문에 없는 험담까지 만들어 내는 자들이다.

#### (3) 사람들에게 있는 결림들

칼빈은 사람들에게 결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복음의 가르침에 "본래적"으로 들어있는 결림들이며, 둘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부가적"으로 뒤따라오는 결림들이며, 셋째는 윤리적 타락이나 위선 혹은 세속적인 신앙과 백자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허망한 태도로부터 오는 "도전적인" 결림들이 그것이다.

#### 가) 본래적인 결림들

본래적인 결림들은 언어의 단순함을 핑계 삼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내뱉는 말들이다. 인간의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기독교교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이며, 둘째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며, 넷째는 우리의 의는 다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우리를 자신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여섯째는 우리의 자기 부인이며, 일곱째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핍박이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교회의 긴 핍박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정의 교리에 걸려 혼

들리는 자들을 언급했다.

#### 나) 부가되는 결림들

복음이 전파될 때 "부가되는" 결림들은 기독교의 선생들 사이에 분파와 분쟁을 유발시킨다. 복음이 종종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칼빈은 영혼을 위한 전쟁은 정당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이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예견하셨다고 답변한다. "교묘하게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꿈으로써 험담을 일으킨다. 선한 사역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 사악한 복음사역자들도 결림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실수 때문에 복음이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역사상 언제나 반대는 있어 왔다. 악의를 가진 복음 사역자들이 선의의 복음사역자들과 섞여 있는 까닭은 선한 사역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다) 도전적인 결림들

"도전적인" 결림들은 윤리적 타락이나 위선, 또는 세속의 신앙고백자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허망한 태도로부터 온다. 개혁교인들에 대해 반대자들이 혈투는 중상모략들 중에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말로 통하여 하는 신앙고백을 도외시키고, 금식을 비판하며, 독신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 웅변적인 교훈을 가진 결론

칼빈은 이 논문을 웅변적인 교훈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권고이다.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처방들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결림들인 것처럼, 깨뜨려야 할 바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서는 슬하게 많은 범죄의 기회들이 수시로 신자들에게 찾아온다. 그리스도 자신도 이런 기회들로부터 자유로우셨던 분이 아니다. 신자들이 첫걸음을 채 내디디기도 전에 마귀는 이미 거침들을 놓는 것이다. 신자들은 많은 범죄의 기회들을 거처야만 한다. 아무리 그 같은 기회들이 다양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은 성공적으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Good Tree Mission, California Grace University  
총장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인생의 Best Way로 인도하는 길, 순종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자녀를 풍성하게 살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랑은 지나쳐서 자녀를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이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보통 어른들에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은 지금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느끼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고 30년 넘게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핵심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순종을 가르칠 때는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기쁘게 즉시 완벽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감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속의 모든 말에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좀 놀라고 서운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때?"하고 묻자, "지금은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풀어줄 사람이지요."라고 말하더군요.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했는지 모르시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럴 때 참 잘 못해. 엄마 좀 도와줘'라고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솔직하게 다가가면 자녀는 엄마의 연약함을 존중하며 기꺼이 도우려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현명한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어려운 일을 아이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현명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지시를 받아들일 때 그 지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는 순종의 YES법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의 YES법칙이란, 우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말하면 아이들이 즉시 "네(Yes!)"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Earnest" 그 말이 옳고 발전적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Suggestion" 제안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제 잘 시간이니 그만 자거라"라고 말하면, 아이는 즉시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히 생각한 후, "제가 한 장만 더 읽으면 이 책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만 더 읽고 자도 될까요?"라고 제안하는 것이지요. 제안하는 법을 모르면 아이는 반항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싫어, 안 해"라는 말이 습관이 되면 부모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단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네"라고 말한 후, 생각해 보고 나서 창의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제안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 가르치는 순종의 YES법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즉시 기쁘고 완벽하게 현명한 지시를 따르는 '순종'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goodtreeusa@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12-25 Clinton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백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2-2524, www.kcb.org 14 Gaversa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20-2004 www.gcnyc.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6:00(토)</p> <p>Tel: (516)387-9940, 9942(EM), www.p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청년부예배: 오전 12:00 영어예배: 오전 1: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p> <p>Tel: (718)706-0100, www.nyc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55(월-토)</p> <p>Tel: (718)762-2525, 5756, www.hyoe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수, 금)</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48 5th St, Hackensack, NJ 07601</p>				
<h4>베이스ай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강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건인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p>Tel: (718)229-285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시 15분 주일학교 오후 1시 15분 청년예배 오후 3시 20분 세백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 백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6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월-토)오전6:00</p> <p>Tel: (845) 359-1458, http://onun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q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 886-4400 nyk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 </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건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685-1859 1130 N. Lim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인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진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나무들 신학교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지난 8월 20일에,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가 스페인에서 117세의 나이로 죽었다. 1907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서 태어나서, 20세기의 온갖 일을 다 겪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나서, 117세를 일기로 사망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항일운

동을 했던 윤봉길 의사보다 한 살이 많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을 백

세인 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 66만 명 가량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10세 이상을 산 사람은 초 백세인 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 4-500명 가량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꽤 많은 듯하다.

이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 “시간이 다가왔다. 울지 마라, 나는 눈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참 멋진 말을 남겼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고령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므두셀라가 생각한다. 그는 969년을 살다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한 최고령

자는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할머니다. 그녀는 187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죽었으니, 122년을 살다 간 것이다. 이 칼망 할머니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칼망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이웃집에 살던 47세 변호사 앙드레 라프레와 부동산 계약을 하나 맺었다. 그 계약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까지 매달 2,500프랑을 지급하면, 할머니 사후에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받는 것이었다. 할머니 입장에서 내가 몇 년이나 살까 하는 마음에 좋은 뜻에 이 변호사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 계약 이후로 32년을 더 살았고, 변호사는 3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 이 변호사는 30년 동안 매달 이 할머니에게 2,500프랑을 지급하고도 아파트 소유

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결국 이 변호사 사후에도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남은 가족들이 매달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앞날은 알 수가 없다. 47세 변호사가 90세 할머니보다 먼저 죽으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렇게 인간의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수 밖에 없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만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wmclakim@gmail.com



박성규 담임목사(왼쪽)와 후임으로 결정된 신용환 목사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후임, 신용환 목사 결정

6개월간 동사무회, 취임은 2025년 3월 16일

주님세운교회(KPCA 서노회 소속)의 박성규 담임목사 후임으로 신용환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 신용환 목사는 지난 9월 1일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시작했다. 박성규

담임목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신용환 후임목사와 동사무회를 할 예정이다. 후임 신용환 목사는 나성한미교회 6대 담임목사로 사역하였고 선한정지기 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면서

토렌스 주님세운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부임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세운교회를 목회해 온 박성규 목사는 남가주 교계에 영향력있는 교회로 터키 난민선교운동, 동성애 반대, 평등법 반대,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서명운동과 미국 청교도신앙회복 다민족연합기도회에 교인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왔다. 주님세운교회는 20년 목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박성규 목사를 이어받아 신용환 목사의 청빙을 계기로 은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 후임목사는 해외 한인장로교회(KPCA) 교단 가입 절차 후에 내년 2025년 3월 16일 주일에 박성규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신용환 목사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평강교회에서 열린 장학금수여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강교회서 장학금 전달식 열려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에서 지난 9월 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장학금은 CAMS(Christian Academy Ministry Scholarship,

대표 안선심 사모)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선교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매년 미주나 멕시코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두 명의 학생이 각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명은 교인으로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피터 송(LACC) 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CAMS 선교회 총무(안용대 목사)가 추천한 루벤 안토니오 피가우에로아 파트리시오(Ruben Antonio Figueroa Patrisio, UC Davis) 학생으로 두 사람 모두 이번 가을학기 입학한다. 엘살바도르에서 온 루벤 안토니오 피가우에로아 파트리시오의 학생 가족은 이날 평강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후 교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일, 여전히 한 주의 ...

(1면에서 계속)

주일이 특별한가?

하지만 트레빈, 당신이 그랬잖아? 주일이 다른 날이랑 비교해서 특별할 게 없다고. 따라서 달력이 바뀐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맞아. 불행히도 사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서 보내는 한 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토요일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여가를 즐기거나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일에 몰두하는 평범한 날일뿐이다. 그러나 주일을 대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조들과 제대로 된 보증을 맞추지 못하도록 한다. 거의 백 년 전에 남침례교단이 채택한 최초의 합의문,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The Baptist Faith and Message)’는 오로지 주일에 대해서만 전체 기사를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기로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했다. 한 주의 첫 날은 주의 날이다. 정기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institution)이다. 이 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공적이든 사적이든 오로지 예배와 영적 헌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오락을 삼가고 세속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 꼭 필요한 일과 선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성명이 2000년에 개정되었을 때, ‘세상적인 오락을 삼가고 세속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

의 양심”에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근 버전이 오늘날 남침례교의 생각을 더 잘 반영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더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제한을 없앴다는 것이(이건 주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건 문화적 변화와 우연하게도 겹친다) 주를 향한 신실함이 더 커졌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더 커졌다는 의미일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성급하게 주일을 단지 아침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또 다른 토요일처럼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주일인가?

주일의 역사를 쓴 후스토 곤잘레스는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공공 예배의 날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다른 나라, 이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시작을 이루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이다. 기독교가 문화에 영향을 주고 또 한 문화 자체를 형성함에 따라, 주일 예배와 안식일 휴식의 병합은 느린 현상이 되었다. 명목상 교인 또는 비교인에게조차도 복음이 끼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달력의 가르침

달력은 가르친다. 내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온 가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친구가 있다. 훗날을 겪고 전례를 낭송하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인터넷에 전혀 접속하지 않는다. 내 친구는 안식일을 시작하며 가족을 인도한다. 안식일 준수는 그 가족의 정체

성을 형성한다. 가족 전체에게 매우 유익하다. 마르바 던은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금 나를 되찾고, 내게 활력을 주고 또 새롭게 함으로 나를 주의 백성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달력은 중요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탈리아 신부 돈 가에타노 탄탈로(Don Gaetano Tantalo)는 두 유대인 가족을 자신의 집과 교회에 아홉 달 동안 숨겼다. 그는 유월절 만찬(Seder)에 필요한 특별한 음식을 찾아줄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존중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있다. 1944년도이고 숫자가 계산되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유대인 달력을 조사해서 유대인 친구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성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왔던 탄탈로의 노력의 흔적이다.

달력은 단지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달력은 드러낸다. 12월에 걸친 크리스마스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1월까지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남아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소비주의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체스터턴과 다른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상 누구보다 빨리 “크리스마스 장식에 열을 올리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에 저항하는 반체제적 관행을 수립함으로써 현대 문화가 초래한 일탈에 저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존경한다.

교회도 달력에 의해 형성된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놀랍게도 “평상시(Ordinary Time)”라는 이름)이라는 독특한 계절을

가진 전통적 기독교 연도에 눈살을 찌푸리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이야기가 드러내는 위대한 순간들을 문화적 표시로 대체한다. 그건 주로 소비 운동에 의한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리고 여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현충일과 노동절.

전통적인 교회 달력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육의 힘과 소경가해지는 안 된다. 연방 정부와 대기업은 달력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굳이 정부는 왜 “금지달(Pride Month)”을 만들어서 표시할까? (성 혁명이라는 핵심 포인트로 전환된) 표현적 개인주의를 기념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도덕적 인정과 긍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반체제적 행동으로 국민을 바꾸고 교육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주일로

달력은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장치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서 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주일을 시작일로 바꾸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일주일에서 하루를 정했다. 그날은 결코 마지막 날이 아닌 첫 날이다. 우리는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노래하며, 다시 돌아와 죽음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믿는다. 주일은 바로 그의 날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다.

by Trevin Wax, TGC

니체를 정치적 스승...

(2면에서 계속)

도덕성 침식

진실의 침식과 마찬가지로 권력 해석학은 도덕성을 상대화한다. 도덕이 단지 권력자가 강요하는 단순한 가치로 전락한다. 니체는 “도덕적 가치의 구별은 지배 계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배받는 계층, 그러니까 예와 모든 종류의 의존 자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썼다. 니체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기독교가 사회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해로운 “노예 도덕”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치적 좌파 대부분에서 태아와 장애인 권리(그리고 점점 더 노인의 권리), 고정된 생물학적 성이라는 현실, 그리고 기독교 성적 규범 같은 유대-기독교 윤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진보”를 향한 인간의 행진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로까지 취급받는다.

한편 대중주의 지도자들의 심각한 성격적 결함은 쉽게 간과하면서도 정치적 표적에 관해서는 공격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수사를 써서 묘사하기 좋아하는 우파의 큰 부분을 사로잡는 게 윤리의 상대화이다. 2018년 내 고향인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은 부르카와 니갑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을 “은행 강도”와 “우편함”처럼 보인다고 묘사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그 덕에 그의 대중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두 차례의 정치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미국에서 여러 번 발생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하늘의 도시를 위해 산다면, 도덕은 결코 권력의 기능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사랑과 인류의 변형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기독교 윤리야말로 위험하기는커녕 변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부터 먼저 확신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만약 유대-기독교의 윤리적 입장을 내세우는 특정 정치인의 도덕적 실패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증언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끔찍한 아이러니를 예민하게 인식해야 한다. 겸손, 온유함, 자제력, 정직, 자선은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라도 칭찬받아야 할 점이다.

권력이 아닌 사랑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고와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인 하나님 자신과 그의 영원하심, 진리, 사랑에 확고히 머물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매료되어 마치 자신의 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 교만해지고, 속고, 시기했다. 그러므로 선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데에 있다. 또는 미가가 말했듯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by Pete Nicholas, TGC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목사회, 2024 글로벌 복음 통일 세미나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2024 글로벌 복음 통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683-8884

## 벤엘교회, 2024 가을부흥회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충성된 제자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고성준 목사(수원 하나교회)를 초청하여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오후 7시30분, 10월 13일(주일) 각 예배에 2024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410-461-1235

## 뉴욕한인회,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을 10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펼쳐진다. 퍼레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38가에서 27가까지 진행된다.

▲ 문의: 212-255-6969

# 뉴욕장로연합회,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 2024

###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

뉴욕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를 9월 15일(주일) 오후 5시에 다민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Be aware of the changes in the world!)"를 주제로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사회 김일태 이사장, 경배와 찬양 퀸즈장로교회 러시아어 예배부, 대회사 및 기도 회장 황규복 장로, 설교 강사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담임), 헌금기도 송윤섭 장로, 헌금송 한문섭 장로, 광고 기도 위원장 송정훈 장로, 축도 황영송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선교대회답게



선교대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총 4개의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진행됐다.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황규복 장로는 대회를 통해 "세상이 너무 급속히 타락해 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바로 선교지이다."라고 전하며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선언했다.

황 장로는 2022년 9차 대회 때 니카라과 어린이 선교사역 지원, 10차 대회 때 우간다 우물 사역 지원, 우크라이나 선교사역 지원 등 지금까지 선교대회를 통해 진행해 온 선교사역의 성과를 발표했다. 광고에서 준비 위원장 송정훈 장로는 현재 평균연령이 80세에 가까운

장로연합회 활동에 젊은 장로들이 참여를 부탁했다.

강사 황영송 목사는 "Now it's your turn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로마서 12:1-2)"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뉴욕은 다양한 국적, 문화, 언어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 퀸즈 지역에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이주해 왔다. 많고 많은 도시 중 하나인 퀸즈를 우리가 뉴욕에서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 세상적인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찬양 순서에서 엘살바도르교회 찬양팀, 뉴욕 퀸스선교합창단, NY&NJ 팬플룻찬양선교단, 뉴욕실버미션합창단,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부 찬양대, 퀸즈장로교회 러시아어 예배부 찬양팀, 온두라스교회 찬양팀, 뉴욕 중국 크리스천 코럴 소사이어티, 중국 크리스천 헤럴드 크루세이드, 뉴욕장로성가단 등이 모든 회중 앞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퀸즈한인교회 앞마당에서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 퀸즈한인교회, 2024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

### 지역 한인들과 타민족 초청, NYPD, 하이헤븐, 하랑예찬 참석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을 9월 14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퀸즈한인교회 교회 마당에서 개최했다. 팬데믹 당시 시작하여 매년 가을에 개최되어 왔던 행사는 어느덧 5회를 맞이하게 됐다.

올해에도 좋은 날씨 가운데 한인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무슬림 가족들을 포함한 타민족들도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는 특별히 NYPD가 참석하여 행사 내 질서 정리와 함께 뉴욕 경찰 업무 소개와 함께 의장대 사열, 경찰 견과 함께한 로보트 등을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마당에는 버

블이 하늘로 올라가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를 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탄 예수전국열차가 신나게 마당을 질주했다. 청년들은 공룡과 각종 캐릭터들로 분장하여 참가한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축제는 퀸즈한인교회 교역자들이 준비한 스킵과 예배, 경품 추첨으로 아이패드를 포함한 푸짐한 상품을 받는 순서로 마무리되었으며 마당 무대에서는 뮤지컬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하이헤븐,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팀이 신나게 울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기독교 영상 선교단체 윌블레스(WillBless, 대표 김창인 목사) 기자회견하고 있다

##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 '하이 헤븐(Hi Heaven)' 런칭

### "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 제작"

기독교 영상 선교단체 윌블레스(WillBless, 대표 김창인 목사)는 9월 13일(금) 뉴욕뉴기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사역과 댄스 워십 페스티벌을 소개했다.

윌블레스는 최근 기독교 어린이 콘텐츠 '하이 헤븐(Hi Heaven)'을 런칭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영상을 9월 1일에 공개했다. 현재 채널은 찬양과 울동, 아이들과 함께하는 댄스 영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자는 6만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는 1,5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시청자층은 25~34세 여성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필리핀(22%), 미국(20%), 인도(14%) 등 여러 선교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뉴욕에서 작업하지만 전세계 아이들이 각국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윌블레스는 기독교 세계관에 맞춘 동물 캐릭터 라인을 개발 중이며, 예배, 기도, 찬양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예수님과 아이들 캐릭터를 포함한 성경 이야기 기반의 콘텐츠를 작업 중이며, Song Book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년 치 공과와

교재를 제작할 계획이다. 콘텐츠, 노래, 책, 교재, 그리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향후 어린이부터 시작해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10월 26일(토)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에서 댄스 워십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문화 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며, 합창과 댄스가 어우러지는 행사이다. 참가팀은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퀸즈한인교회 합창팀, 뉴욕효신장로교회 Now Move 청년부 댄스팀, Flow 댄스팀이 있으며, 주최 측은 윌블레스(Willbless)는 유해립 뮤지컬레터, 아버지일류 뮤지컬레우, 하이 헤븐 댄스팀이 출연한다.

김창인 목사는 "현재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며, 소명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뉴욕성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예수님과 아이들 캐릭터를 포함한 성경 이야기 기반의 콘텐츠를 작업 중이며, Song Book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년 치 공과와

이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은 917-499-9048로 연락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95회 뉴욕동회 정기노회 및 목사 안수식 후 사진 촬영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95회 뉴욕동회 정기노회

### 주사랑장로교회 홍아담 목사 안수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회(회장 허민수 목사) 제95회 정기노회가 9월 17일(화) 오전 10시 주사랑장로교회(최성현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노회장 허민수 목사 인도로 시작한 개회예배는 기도 최성현 목사, 성경봉독 차석희 목사, 설교, 성찬예식 허민수 목사, 광고 문신언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허민수 목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하 2:1-14)'의 제목을 통해 "엘리아 세대의(이전 세대)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 말씀과 개혁신학 전통이며, 유산을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는 뒷모습이다. 엘리아 세대(새 시대)는 엘리아의 길을 가깝게 따라야 한다. 이 동행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이민교회의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엘리아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자"고 외쳤다.

노회장 허민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는 ▲퀸즈제일교회 당회장 황상하 목사로부터 교회폐쇄 허락 청원 ▲주사랑장로교회 당회장 최성현 목사로부터 홍아담 전도사 목사안수식 ▲주사랑장로교회 당회장 최성현 목사로부터 홍아담 전도사 목사안수 후 부목사(EM) 청빙 청원 ▲제자삼는 교회 당회장 이규섭 목사로부터 교회이전 허락 청원 ▲총회로부터 유아세례에 관한 헌법 수정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목사 안수식이 주사랑장로교회에서 열려 주사랑장로교회 홍아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홍현숙 기자)

# 피종진목사 9월 2024년 국내외부흥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주) 오전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군중 강우일 중령)
- 제 241차 해외성회 (241th Overseas Assembly)**
- 2(월)-3(화)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스대만 목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 4(수) 일본(JAPAN) 동경사랑의교회(정스대만 목사)
- 5(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대중전도집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김태실 목사)
- 6(금) 오전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주최: 월드비전부흥협의회(대표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 7(토) 오전 Blessing Association MT
- 9(월) 서울국제예술선교회(김재영 목사) 010-6713-0388 천보산 임영술 목사
- 9(월) 저녁 대구 복구제일교회(이재우 목사) 010-6698-3071 주최: 그루터기선교회(송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재윤 목사)
- 10(화) 오전-후 청명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 12(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철철 목사) 주최: 멜로힘선교단(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16(월)-18(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010-3739-4442
- 19(목) 오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 20(금) 오후 국제학술원(이사장 김영준 목사) 010-9260-1091
- 23(월)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노영애 목사) 010-2236-9182
- 24(화)-25(수) 충주 다메섹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 26(목) 오전 아산 첫사랑회복센터(김안나 목사) 010-5301-8220
- 27(금) 저녁 인천 은혜교회(한명희 목사) 010-7370-9191
- 28(토) 오전 Miracle(미라클) 국제선교센터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총재 조예환 목사, 대표회장 강수아 목사) 010-9082-9030
- 30(월) 오전 인천 주사랑영방구국기도원(백사명 목사) 010-2272-9119
- 30(월)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연준 목사) 010-2391-3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 회복과 새로운 시작,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 '목회자들의 사역 회복과 방향성 확립을 위한 은혜의 시간'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9월 9일(월)부터 9월 12일(목)까지 베이스 이드장로교회(시무 이종식 목사)에서 40명의 목회자가 참석하여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얻은 회복과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조희창 목사는 "사역 방향에 대한 확증을 받았고, 앞으로 50년간 배운 것을 잘 적용하여 교회와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나누었다.

홍순조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이 선포되었고, 자기감에서 벗어나 성장할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황유선 목사는 "계으름과 헌신 부족을 반성하며, 제자 훈련과 설교 준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경현 목사는 "다른 목회자들과의 교류와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박덕길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목회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서 너무 좋았다. 금식과 선교지 후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원 전도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도전을 통해 사역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었고 동시에 그 한 사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간증자들 사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사랑을 드린다"고 전했다.

마상철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사역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과거의 열정을 되살려 청년들과 성도들을 훈련하고자 한다"고 나누었다.

이날은 제1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참석한 김인집 목사가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의를 나가기

로 결정하고 2주 전,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인집 목사는 "세미나 후 우머를 통해 하루에 12시간씩 6개월 동안 1,278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이후 현재 코네티컷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감사인사를 위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에게 회복과 사역 방향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홍현숙 기자)





고향선교회 주관 제10차 선교대회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 고향선교회 주관 제10차 선교대회

#### 탈북민... 북한선교의 첨병역할 할 것

고향선교회(이사장 이창교 장원 상남교회 담임목사)가 주관한 제10차 고향선교대회가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겔 37:15-28)'이라는 주제로 9일(월)부터 15일(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창교 목사는 "선교에 대한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적인 방법 및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출신 목회자나 성도들이 북한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사람들과 동일한 말투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탈북민들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끌 통일 역군이 될 수 있으며 북한선교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향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며 이 땅에 보내 준 탈북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의 사회로 13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이주은 목사(주소망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북한여군 출신 주영순 목사(새생명교회 담임)의 간증이 있었다. 이어 이창교 목사가 '못 본체하지 말라(신 22:1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향선교회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특송했다. 이날 집회는 고향선교회 이사 신승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가 주최한 장학금 후원 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장학금 후원 음악회

####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싱글 맘 자녀들을 위해'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회장 이선자 목사) 주최 싱글맘 자녀 장학금 후원 음악회가 14일(토) 오후 4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선자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 홀부나 홀모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매우 힘이 든다"며 "이번 음악회는 눈물로 키운 자녀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돕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준

비했다"고 말했다.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의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OC교회 협회장)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이날 후원음악회는 소프라노 최은원, 김숙영, 아리랑합창단, 테너 오위영, 최원현, 아브라함 합창단, CTS 아메리카 여성합창단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으며 전출연자들이 함께 '은혜'를 부른뒤 이호우 목사(OC교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소망소사이어티, 소망 자선갤러리 오픈

####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소망초등학교 세우고 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3회 소망 크리스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소망자선갤러리 오픈 행사를 13일(금) 오전 11시 AJL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미국에 이민 온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언제부터인지 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갤러리를 통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작품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선교후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갤러리의 목표는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소망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소망초등학교는 오전에는 정규과목을 오후에는 한글과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소양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인 윤우경 권사 사회로 열린 오프닝 행사는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유분자 이사장이 환영사, 임규호 소망갤러리 공동위원장의 소망 갤러리 경과보고, 소망갤러리 기증자들의 영상, 소망중창단 축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소망소사이어티 평생회원이자 차드 후원자인 김그레이스, 이성규 장로, 이동승 권사와 소망갤러리 물품 기증자 홍수잔 씨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희선 소망 갤러리 공동위원장이 기증품을 설명했다. 이날 오프닝 행사는 이성규 장로 기도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 자선갤러리 오픈 행사에서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주최 사랑의쌀 나눔행사가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 남가주교협주최 사랑의쌀 나눔행사 실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한인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개최됐다. 12일(목)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담임 최남진 목사)에서 열린 쌀 나눔 행사에서는 남가주교협 회장단의 진행 하에 사람들에게 쌀 한 포석을 선물했다. 행사 전에 열린 예배에서는 권영신 장로가 기도하고, 최영봉 목사가 '건강하세요(잠언 4장 22-23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배는 정

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쌀 한 포대와 이조케더링에서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이번 11월 선거에서 코리아타운이 속한 10지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한인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아하"고 강조하며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한인타운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교협 관계들과 함께 쌀을 나누어주었다. 한편 13일과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샘키뮤니티교회(담임 샘신 목사)에서 쌀 나눔 행사를 계속 실시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024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Seek His Face)"란 주제로 2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323)578-7933(강태광 사무총장)

#### 미주평안교회 가을 심령부흥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가을 심령부흥회를 21일(토)부터 22일(주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양한갑 선교사(필리핀, 미얀마 지역)이며 일정은 21일(토) 저녁 6시, 22일(주일) 1부(오전 8시)와 3부(오전 11시) 예배시간이다.

▲ 문의: (213) 381-2202

#### 은혜한인교회 목사안수식

성현준 전도사와 이민 전도사, 그리고 황찬의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21일(토) 오후 6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714)446-6200

#### 고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예배

고 이정근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오는 9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 토렌스산성교회(윤석형 목사)에서 미주성결교회 교단장으로 거행된다. 미주성결교회 목회자, 언론인,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31대 회장 역임, 유니온교회 원로 목사였던 고 이정근 목사는 지난 9월 1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문의: 김시은 목사(성결교단 총무) (213)407-4569

#### 에브리데이교회 가을 부흥회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는 가을 부흥회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벧전 2:9)'이라는 주제로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김지찬 교수(충신대학원 구약학 교수)이며 일정은 20일(금) 저녁 7시30분, 21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7시30분, 22일(주일) 1-3부 예배시간이다.

▲ 문의: (818) 832-6628

####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 찬양 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회장 강민석)가 주관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 후원을 위한 찬양 합창제가 21일(토)과 22일(주일) 양일간 오후 6시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371-3167



연합선교교회에서 열린 옹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에서 옹기장이선교단이 찬양하고 있다

### 옹기장이선교단 찬양집회

#### "찬양은 주님을 깨닫고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

옹기장이선교단(단장 정태성) 찬양집회가 15일(주일) 오전 11시 연합선교교회(담임 김종호 목사)에서 열렸다. 옹기장이선교단 김남웅 총무는 "연합선교교회 새생명축제와 추석을 맞이하여 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오늘 예배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기도해',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이름의 승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카펠라로 '주'

에, '다 찬양하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등을 불렀다. 예수항기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된 예배는 최은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종호 목사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시 145: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호 목사는 "다윗의 찬양은 누가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든지 모든 것이 담겨있다. 찬양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함을 노래하는 것이며 주님을 내가 깨닫고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라며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바란다. 찬양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주시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표현이다.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을 찾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한걸음 한걸음 따라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김종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PT사역 전략세미나 개최

####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와 AI를 통해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AI MISSION의 공동주최로 열린 ChatGPT사역 전략세미나가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ChatGPT사역전략 세미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AI를 활용하여 교회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신앙 공동체와 목회, 선교,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되었다. 1부 발제를 맡은 AI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강단의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에 ChatGPT를 활용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강단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tGP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Ai mission 이총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실질적인 ChatGPT를 활용법과 목회 카테고리별로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으며 3부에서는 미션어워즈 대표이자 미래목회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인 김광근 목사가 발

제자로 나서 ChatGPT 시연을 통하여 이 시대 AI가 할 수 있는 목회 영역들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장 50여명, 온라인 ZOOM 200여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Chat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인공지능이 목회와 설교준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ChatGPT를 통해 우리의 목회와 선교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목회와 선교, 교육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ChatGPT와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신앙 공동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선교 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GMU는 미래목회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4)525-0088, admissions@gm.edu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PT사역 전략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추석', 이주민 선교를 위한 거룩한 산제로 되다 교인 130명, 이주민에게 '추석' 선물

“추석 오늘이야말로 이주민을 초청해 대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어요.” 이주민에게 명절을 선물한 교인들이 추석 당일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7일 경기도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는 이주민 근로자를 초청해 '추석 맞이 이주민 초청 전국복음 잔치'를 열었다. 이주민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팜택 아가페 국제교회(정철원 목사)와 한국 기독교 소방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교회 130명의 교인은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추석을 반납해 교회로 모였다. 교회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자”는 다짐으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행사 전부터 교회 근처 대학교, 공장, 용인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진행했다. 이선재(50) 집사는 택배 일을 하며 여러 국적의 이주민 동료를 만났다. 이 집사는 “아프리카 노동자는 대부분 크리스천이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종교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이주민 노동자 역시 십자가 달린 교회를 낯설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통해 아프리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생소한 지역의 이주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아가페 국제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성도들의 나라별 찬양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기쁨의교회가 드라마 마임 서커스 등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 정의호 목사는 “낯설고 먼 한국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고국에 돌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족 친지 친구가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축복했다.

참석한 230여 명의 이주민들은 문화공연과 식사로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유창선(58) 집사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외국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식(39) 집사는 “명절에 이주민을 초청해 대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에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혼자인 어르신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도록” 추석 사랑 나눔의 현장 다일공동체, 어르신에게 추석선물키트 제공

추석 연휴 기간 끼니를 잇기 어렵거나 찾아올 이들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선물키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달 서울 동대문구 파피어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연휴 기간 문을 닫아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르신 600여명을 위한 다

양한 선물이 마련됐다. 이날 특별식 점심이 제공된 데 이어 불고기 정식 도시락을 비롯해 쌀 밀키트 주스 우유 송편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전달됐다. 마당 한편에서는 이미용 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 남군산교회(이신사 목사)는 지난 10일 한 마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70명을 초청해 10만원을 후원했으며 성도 105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집과 마트까지 이동을 도와주고 함께 물건을 골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직접 물품을 배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정순(78)씨는 “명절을 앞두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기쁜 마음을 나눴다. 이신사 목사는 “건강도 안 좋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가족사랑을 선물하고 싶어 마련한 행사”라며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군산교회는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추석 소풍 이벤트를 선물했다. 군산시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과 청소년 등 140명을 초청해 식사와 소풍 지원금을 전달했다.

남군산교회는 2015년부터 명절마다 어르신들을 마트로 초청해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보육시설 아이들에게도 2004년부터 외식 및 사랑의 소풍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60세 이상 교인 절반 육박... 실버 크리스천 시대 열린다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한 세대가 흐른 30년 뒤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60대 이상 교인이 전체 교인 수의 절반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노인 성도가 주축이 되는 이른바 '실버 크리스천 전성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교회와 노회, 교단 총회를 비롯해 신학 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실버' 목회·목양·교육 등 준비가 필요한 때다. 전국 권역별도 신자 수의 증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은 신자 수가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되지만 경상·전라권은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별 선교 전략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회 데이터연구소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등 국내 15개 교단의 22년치(2001~2022년) 교세통계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전국 시도별 추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했다. 추계 결과 현재 28.9%(240만명)인 60세 이상 교인 비율

은 2050년 43.9%(246만명)로 부쩍 늘어난다. 실제 교인 수는 전체 인구 감소 추계치가 감안되면서 큰 차이가 없지만 비율만 따지면 주일 예배당 좌석 절반 가까이 60세 넘는 어르신이 차지한다는 얘기가. 이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는 시점은 더 빠르다. 2031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30.9%로 2030세대(24.5%), 4050세대(30.6%), 19세 이하(14.0%) 교인 비율을 앞지른다. 일반 회사 등에서 60세에 정년 은퇴를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한걸음 물러나더라도 교회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신앙 동료들이 더 많아지면서 제2의 신앙생활 전성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 블루오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로회신학대 박사과정 중인 박요한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는 “같은 박사과정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실버 목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음세대에 관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교인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목회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출생률 비롯한 인구 감소세와 맞물리면서 타연령대 기독교인



###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행사' ...교계, 반대집회로 맞불 대구 중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행사' 열려

대구퀴어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앞둔 가운데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고 있지만, 주최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다.

17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병일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회원교회에 '대구·경북 퀴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참석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퀴어행사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종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이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퀴어

행사조직위는 지난달 말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신고 인원은 모두 3000명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도 입장 조율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에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퀴어행사 조직위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열린 퀴어행사에서는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행사 조직위가 허가 없이 도로를 막고 축제를 열었다며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

을 진행했다. 이에 축제를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경찰과 충돌을 빚어 일부 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 대구시와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퀴어행사 조직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종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대구퀴어행사는 경찰의 제한통고와 대구시의 차별적 태도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집회 신고 가처분 소송과 함께 퀴어행사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동성로 삼점가 상인회와 대종교통전용지구의 점포 점주도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퀴어행사 측의 집회신고 취소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퀴어행사 조직위는 지난해 중앙로 대종교통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진행된 15회 퀴어 행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대구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대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퀴어 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집행이 적법하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니 협조 사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 “타문화권 선교 활성화 위한 선교노회 필요” '제1회 한인교회 목회자대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소속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선교노회 설립을 통해 주님의 선교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13일 충북 진천 새벽월드자연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한인교회 목회자대회에 참석한 30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분반아 겸손히 섬기는 성육신적 선교와 목회를 감당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욱 담대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10일부터 이어진 이번 목회자대회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7년 이상 한인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부부간의 내적지유와 관계증진, 영적 재충전과 회복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과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현장 선교사들의 숙원사업인 '선교노회' 건도 함께 논의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설립에 동의했다. 선교노회는 해외 한인 목회자를 위한 노회로 재산권 보호와 목회자 양성, 장로 선별 및 임직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109회 총회 때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선교노회가 선교지만의 특수성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라며 “한인교회가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타문화권 선교의 관문이자 거점으로 쓰임 받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총회와 새벽월드교회(조충만 목사) 잠실교회(립형천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포항동부교회(김영걸 목사) 상산교회(서은성 목사) 부산광진교회(정명식 목사) 창동염광교회(황성은 목사) 연동교회(김주용 목사) 국수교회(김일현 목사) 등 총 16개 교회가 동참했다.

###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선교의 힘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은 선교의 핵심이며,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선교 활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다시 한번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이름인지 재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선교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일으킨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합니다(행 3:16). 예



#### 1. 예수의 이름, 구원의 능력

예수의 이름 자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이 사건은 예수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고치고 구

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 2. 예수의 이름, 선교의 중심

선교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기적

을 행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선교지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자신들만의 구원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을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벽을 허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다민족과 다문화 사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갖는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를 선포하며 나아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베드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 사함과 영혼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선교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한 도덕적 변화나 인간적인 삶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회심과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열리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갖는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교사들의 사역의 권위와 능력의 근거가 되며,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구 사함,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사역의 권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 3. 교회의 사명: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렇다면, 지역 교회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

문에,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는 선교 사역을 계획할 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은 선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회는 그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역 교회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과 소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온 열방에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dr.yongcho@gmail.com

### 전도자 C. S. 루이스(3)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 전도자 C.S. 루이스의 예비 전도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각계에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여러 언론이 C.S. 루이스의 선교적 역할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계통의 전문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Christianity Today)는 수차례에 걸쳐서 C.S. 루이스의 선교적 영향력을 조명했다. 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 2004년 4월호는 "20세기에 발현된 기독교 서적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투데이 칼럼니스트들이 1위로 꼽은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다. 2위가 독일의 위대한 순교자 디트리히트 본헤퍼의 <제자도>이고 세 번째는 교회사에서 탁월한 신학자로 빛나는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의학>이다.

저명한 기독교 역사 잡지인 <크리스천 히스토리(Christian History)>는 "금세기의 최고의 인물(Best of Century)"이라는 커버스토리(cover Story)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10

명을 소개했다. 이 글에서 10명의 걸출한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5명은 성직자들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평신도들이었다. 평신도 중의 첫 번째가 C.S. 루이스다. 이런 주장에 가장 강력한 주장은 일반 언론인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나왔다. 뉴욕 타임즈(2011년 3월 7일자)는 <현재 진행 중인 C.S. 루이스 유산(C.S. Lewis's Ongoing legacy)>라는 특별칼럼을 게재했다. 기고자 마크 오펜하이머(Mark Oppenheimer)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다. 그는 여러 대학에서 종교와 정치, 혹은 저널리즘을 강의한 교수요, 뉴욕 타임즈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 종교 칼럼을 기고하는 전문 칼럼니스트다.

마크 오펜하이머 박사는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기독교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

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마크 오펜하이머 박사가 언급한 세 사람 중 첫째는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기독교는 로마 황실을 정복하며 큰 확장을 이뤘다. 둘째는 11세기의 교황 우르바노 2세다. 그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승전한 교황이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로마교회는 큰 확장을 보였다. 셋째는 20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했다. 그만큼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한 전도의 결실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는 C.S. 루이스는 겸손했다. 그는 자신의 전도활동을 예비전도 활동이라고 불렀다. 특히 C.S. 루이스는 자신의 예비전도(Pre-Evangelism)를 설명하면서 라틴어 "프라에파치오 에방겔리카(Praeparatio Evangelica)"를 사용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예비 전도를 라틴어로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프라에파치오 에방겔리카는 4세기경 교회사학자 유세비

우스가 카이사라 지역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정리하는 작품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세비우스가 당시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가이사라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저술했다. 그는 20권의 <복음의 논증>과 더불어 15권의 <복음의 준비>을 썼다.

유세비우스 감독이 쓴 <복음의 준비>가 바로 예비 복음이다. 그는 <복음의 준비(Praeparatio Evangelica)>를 통해 사려 깊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

지 않고 바랐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했던 것이다.

<복음의 준비>의 1-6권은 이교주의 체제를 설명하고, 다신론과 그리스도교는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7-13권은

이교도의 어리석음과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한다. 지식층 헬라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헬라 철학자들도 그리스도교 사상을 빌려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14-15권은 그리스도교의 고대성을 설명하고 있다.

유세비우스가 사용했던 프라에파치오 이벤젤리카(Praeparatio Evangelica)라는 용어를 C.S. 루이스가 다시 사용했다. 루이스는 방송 강연을 포함한 자신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활동을 프라에파치오 에방겔리카(Praeparatio Evangelica)라고 부르면서 <예비전도(Pre-Evangelism)>의 의미로 사용한다. 자신의 활동은 전도자들의 전도를 돕는 과정이라고 인식했다. 루이스가 사용하는 예비전도의 의미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다. C.S. 루이스는 자기 활동을 겸손하



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예비전도 활동을 했다. 루이스는 강연, 소설, 에세이, 편지, 학술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향기를 전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충실하게 전하려 하였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였다. 그의 이런 활동과 저작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다.

폭넓은 독서와 인문학적 소양으로 인생과 신앙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C.S. 루이스는 기독교 후기 시대에 진입한 20세기 영국과 미국 사회를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의 문이 닫혔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전도보다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비전도 활동에 집중했다. 준비된 그의 예비 전도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결실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미 기독교 후기(Post Christianity)에 돌입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전통적 전도가 거부당하는 시대다. 복음이 벽을 만난 것이다. 복음이 장벽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직진하지 않았고 예비전도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던 C.S. 루이스 지혜를 배워야 한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예비전도(Pre-evangelism)를 숙고해야 할 때이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입하신 아들의 영광 (막9:2-3) 찬 436장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이 주님에게서 나타나심을 본 것이다. 광채가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참 빛이 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거룩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어둠이요 사람은 어둠에서 산다고 하셨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모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

수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되는 나에게 거룩한 빛을 입히신 것을 알고 그 실상을 보고 누리야 한다.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입고 누리고 살라. 어둠의 생각들이 나타나면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간다. 구원 받은 자에게 입하신 영원한 거룩한 빛임을 알고 빛의 권세를 누리라.

#### 화 악한 영이 접근하여 시험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막9:17-26) 찬 400장

귀신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다 죽이려고 불과 물에 들어가게 한다.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한다. 오늘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얼마든지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죄에 빠지게 한다. 죄의 충동을 일으켜 그 생각으로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또한 이웃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또한 죽이고자 하는 충동을 일

으킨다. 이러한 것이 사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나에게도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같이 당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생각이 마음에 누룩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품지 않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여 악한 생각이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수 겸손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하라 (막9:34,35) 찬 214장

육신의 마음에는 자신을 항상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만일에 자신이 낮아 졌을 경우에는 매우 마음이 상하여진다. 이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자신이 높여지기 원하고 대접 받고자 원한다. 죄의 성품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훈련은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생각하라. 주님이 항상 같

이 하시는 인생임을 생각하라.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니까 내가 교만하여 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다.

#### 목 죄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막10:17-27) 찬 151장

죄인은 장차 영원한 형벌 받을 곳으로 가서 산다. 이러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을 정하시고 심판을 하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받을 법을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죄인에서 형벌

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살아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관계에서 주인으로 계시면 주인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다. 다른 열쇠는 없다.(요 3:16,17. 살전5:9. 딤후전 1:5).

#### 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한다. (막10:32-41) 찬 348장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속죄 제물로 드림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여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이 높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육신의 생각은 죄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사망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습관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앞으로 더욱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마음에 풍성하도록 하면 사망의 생각들이 쉽게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출7:13, 신6:6. 왕상 11:2 시 119:11, 히4:12)

#### 토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다. (막10:46-52) 찬 289장

맹인 거지 바디매오에게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게 부르신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지 바디매오를 부르신다.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외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즉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주신 대로 고백한 것이다. 나에게 어려움을 만나 사망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일어날 때 주님이 나

에게 주시는 믿음의 응시를 들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외치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육신에서 주는 생각들을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마음에 빛과 같이 나타나는 믿음을 시인하라 고백하라. 그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다.



###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 AI(Artificial Intelligence) 도구 활용 1회

인공지능(AI)의 보급과 활용 범위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의 진보에 대하여 교회가 따라 갈 수 없는 기술로 여기며 뒤처지기 보다는 현 시대에 맞는 방법과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회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총 10회의 연재를 통해 AI를 교회와 선교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

매우 다양하며,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여러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활용은 교회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AI 도구의 활용은 효과적인 목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AI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목회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 교회 출석 관리, 기도 요청 응답, 일정 관리 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다국어 번역 도구를 사용하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목회와 선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의 ChatGPT는 단어나 구절을 입력하면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 타 언어권에 대한 복음 전파에 유용합니다. 또한, 실시간 동시 번역 AI를 활용하면 예배 중 여러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다국어 번역 도구와 AI 음성 생성기를 활용하면 기존 목회자의 영상을 다양한 자막으로 생성하거나, 설교나 강의 영상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원본 목소리와 유사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소셜 미디어 게시물, YouTube 썸네일, 웹사이트 배너, 포스터 등 방문자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는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이나 값비싼 소프트웨어 없이도 고품질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AI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앙 성장에 맞춘 성경 공부 자료, 설교, 목상 글 등을 생성할 수 있으며, AI 챗봇이나 가상 비서 도구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앙 상담을 제공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도구의 활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비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목회와 선교를 위해 AI 도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dr.jameskoo@yahoo.com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자연어 이해, 패턴 인식, 문제 해결, 의사 결정, 경험을 통한 학습 등이 포함됩니다. AI는 컴퓨터가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능을 모방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하여, 인간 지능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를 활용하면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트렌드와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캠페인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과 조직의 운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사용은 거의 모든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목회와 선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AI를 목회와 선교 사역에 적용하는 방법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로평지

우크라이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7개월이 되었고, 최근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포격이 더 심해져서 자주 울리는 사이렌소리와 정전, 단수 등으로 사역과 생활에 좀 불편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저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교회들을 순회하며 말씀도 증거하고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 10월은 우크라이나 개신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시기로 저희도 바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우크라이나 거주를 1년 연장 받았고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체르니히우의 뒷밭에 심어 놓은 단호박과 열무, 깻잎, 실파 등이 전쟁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흑적 토 덕분에 잘 자라 서선교사님들과 이웃에 나눠주었습니다. 또 이웃들로부터 토마토와 사과, 가지, 애호박 등을 얻었습니다. 또한 협력하는 교회를 순회할 때 몇몇 성도들은 병에 담가 놓은 토마토, 오이 등과 꿀을 줄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선하고 친절합니다.

8월에 협력하는 체르니히우교회(바벨 목사 시무)에 10명이 세례 받았고 8월 31일에 저의 제자 발첸코안드레(알로자 리더 첫째 아들)가 목회자 딸과 결혼했고, 젊은 사역자 씨파일로 안드레가 딸을 낳는 등 전쟁 중에도 영육으로 새 생명이 탄생함에 감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는 2021년 9월 목회학석사(M.Div) 2명, 신학사(B.Th) 2명으로 시작한 이래 지난 9월3일에 개강예배 드릴 때에는 총 4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13명이 내년 6월까지 매일 한 과목씩 가르치게 됩니다. 100% 온라인으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45명의 학생 분포는 미국 1명과 독일 1명, 우크라이나 2명, 우즈베키스탄 1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알타이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19

명이 매주 월, 화 알마티 시간 오후 7-9시에 수업합니다. 이에 지난 5, 6월 몇몇 학생들을 방문하면서 총 5대의 노트북을 중앙아시아교육재단으로부터 후원 받아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에 다니고 교회에서도 리더로 잘 섬기고 있고 안드레 결혼, 몰도바 세르게이 목사님, 야로슬라바 목사가 32세가 되어 믿음의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

니히우 교회에 10명이 세례 받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주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5, 8월 말부터-10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추수감사



체르니히우 교회 세례식 후



내년 6월 9일 주간(예정)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사가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모여 수련회 및 졸업식(졸업생 10명 예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주간(8/8-8/24) 유럽에 간 우크라이나 난민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 피난처의 후원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몰도바 등 동유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지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독일 등 서유럽은 곳곳에 20-50명 정도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모여예배 드리고 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 목회학 석사과정 2학년인 야로슬라바 목사가 드레스덴 주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순회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은 특성으로 인해 45명의 학생 분포는 미국 1명과 독일 1명, 우크라이나 2명, 우즈베키스탄 1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알타이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19

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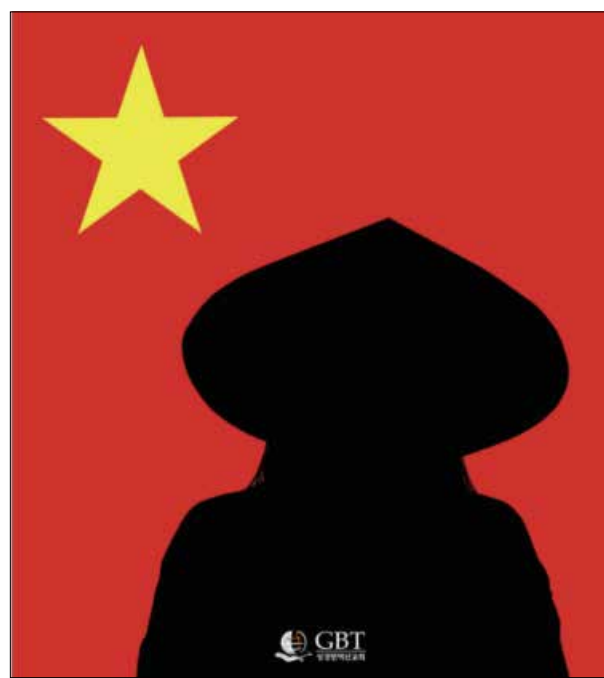
기도제목

- 1.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의 총 45명(목회학 석사 23명, 신학사 22명) 학생이 각 지역교회에서 잘 섬기며 수업을 받을 때에 인터넷 환경도 좋아지게 하옵소서.
2.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젊은 이들의 사상자가 더 이상 없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더 이상 스트레스(외상 증후군, DTS)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3. 르주십교회 사모 스페따(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 신학사 3학년)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이 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속히 나아서 교회 섬김과 신학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4. 최근 8월에 협력하는 체르



절을 지내는데, 협력하는 교회들을 순회할 때 전쟁의 아픔 중에서도 그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6. 최하영, 김순희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하영, 김순희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파이요 종족

▲ 인구 약 7,5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복음화율 5%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베트남 북부와 라오스 중앙 지역에 흩어져 산다. 주변 종족과 유사점이 많지만, 그들만의 구별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집에서는 파이요어를 사용하고 외부인과는 공용어를 사용한다. 결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많은 규범들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신랑, 신부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는다. 라오스에는 약 5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다.

▲ 기도제목

- 1.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달되어 대량 학살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2. 카오츱과 복음을 나눌 일꾼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a church name, contact person, and details. Columns include: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 교회, 말씀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벨앨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일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한가위 사랑**



추석은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지켜 온 일 년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햇볕과 바람 그리고 비와 이슬로 농사를 마치고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삼고 있다. 또한 여름 동안 농사일로 소홀했던 부모님에게 효도와 형제자매의 우애를 두터이 하는 절기로 지켜왔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말한다. 이 말은 '큰 가배절'이라는 뜻으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말하며, 또 크고 둥근 보름달을 연상하게 하는 명절이다.

소슬한 가을바람과 함께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이 드높아 보이며, 둥글고 큰 밝은 달이 가을 하늘에 떠오르면 그 정취는 일 년 열두 달 어느 계절에서 느끼기 어려운 가득

채워지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여름의 태양은 강렬하고도 정열적인 맛을 가지지만, 한가위의 달은 아늑하고 고요한 그러면서도 깊고도 은은한 정을 느끼게 하는 맛을 가지고 있다. 태양이 남성적이며 아버지의 위엄을 느끼게 한다면, 달은 여성적이며 어머니의 깊은 정을 느끼게 한다. 한가위의 보름달은 모가 나지 않아서 좋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서 좋다. 보름달은 온전함과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는 무한대의 느낌을 주어서 좋다. 보름달은 맑고 밝은 청아함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연상시켜서 좋다. 나는 보름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된다.

끝없는 무한대의 사랑,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다함이 없는 사랑,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웅덩이처럼 한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그 무한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울어짐이 없는 사랑, 누구나 다 사랑하는 평형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가 없는 사랑, 각을 이루는 유별난 사랑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사랑, 항상 부드럽고 평안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장자리가 없는 사랑, 변두리가 없이 항상 중심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맑고 깨끗한 사랑,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 고상하고 우아한 사랑,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가위의 달을 보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나는 느낀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진다.

sjkcdc@hanmail.net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 4:11-12)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찌푸린 하늘 아래서도”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오늘은 하늘이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잔뜩 찌푸린 하늘을 올려보다가, 그 찌푸린 하늘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찌푸린 하

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찌푸린 하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과 나무들과 정원의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뭐가 그리 바쁜지, 이리저리 분주하게 날고 있는 새들과 스코틀까지 모두 모두 저를 반겨주어 미소를 짓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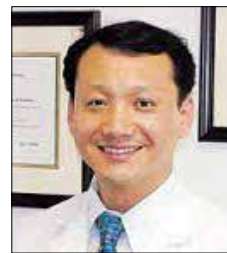
순간 "그래 찌푸린 하늘만 보고 오늘을 시작하려고 했으면 내 마음이 찌푸린 하늘처럼 울적하게 시작을 했을 터인데 하늘 아래를 보길 참 잘 했군. 잘했어"... 그렇게

제 자신을 격려하며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제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둘도 아니고, 좁디좁은 공간도 아니지만, 어찌하면 그렇게도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왔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아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

건강 길라잡이



이명직 내과전문의

일과 건강 - 고혈압의 치료

고혈압의 초기 치료는 대개 약물 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이나 체중 조절, 식사에 소금의 양을 줄이는 식사 요법, 지나친 음주를 금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부작용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고혈압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을 줄수있다. 반면에 약물치료는 돈이 들고 일시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떤 고혈압 약을 어떻게 시작할 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 반복해서 측정되는 경우에 시작한다. 또 고혈압 전 단계 (prehypertension) 에서도 혈압약을 미리 시작하면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예방할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물론 고혈압 치료를 하는 주된 이유는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많은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완

기 혈압이 특히 높은 환자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는데 이완기 혈압이 105 mmHg 이상되는 환자가 고혈압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심혈관 합병증이 3분의 2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 약은 크게 4가지 이다. 에이스 억제제로 알려진 것(ACE inhibitors / ARBs) 베타 차단제 (Beta blockers), 칼슘 길항제 (Calcium channel blockers), 이뇨제(Diuretics) 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약이 더 우수하다고 볼수는 없고 약의 장단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적으로도 약의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것을 볼수 있는데 흑인들은 이뇨제나 칼슘 길항제에 잘 반응하는 대신에 베타 차단제나 에이스 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잘 듣지 않는다고 하고 백인들에서는 에이스 억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젊은 고혈압 환자에서 에이스 억제제가 잘 듣고 노인에서는 이뇨제

와 칼슘 길항제가 잘 반응한다.

흔히 사용되는 고혈압 약제의 특징과 흔한 부작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에이스 억제제는 동양인의 50%이상에서 마른 기침을 유발할수 있고(백인에서는 5% 이내)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심부전 증이나 당뇨병성 신장 질환과 같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칼슘 길항제의 경우 부정맥 치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용량이 높아지면 다리가 붓거나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정도 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질환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칼슘 길항제와 같이 사용될때는 맥박이 너무 느려질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천식이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남성에서 성기능을 감소 시킬수 있다. 이뇨제는 혈압 강하 효과가 크면서도 값이 매우 싼 장점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지나친 이뇨 효과로 인해서 혈중 전해질의 이상을 가져올수 있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상승시킬수 있다.

이처럼 고혈압 약은 장단점을 잘 알고 복용해야 하고 약값도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을 시작할때는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문의:213-383-9388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로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ru 김성국 목사 신간 컬렉션

